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에서는 문화벨트, 문화지구,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이 문화도시론에 구성요소로써 문화도시를 정의하였다. 문화시설의 배치와 이에 따른 문화거리, 지구, 문화벨트의 조성 등 문화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계획하였다.

광주시는 ‘문화의 중심인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로 문화중심도시로 정의하였다. 또한, ‘아시아중심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도시 자체를 문화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닌 아시아 문화를 밀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해가는 도시로 계획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2005년 문화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15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계획요소를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문화공간, 문화행정, 문화시민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문화적인 장르인 예술을 포함하여 복지, 산업, 도시공간, 행정, 시민생활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계획하게 되었다.